

우리 협회는 지자체 공무원 46명, 기업체 종사자 16명 등 총 62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구성하여 지난해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최근 건설된 치바정수장을 방문하여 현지 시설정보 및 선진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2007 요코하마 수도전'에 참가하여 일본 내·외의 상수도 기술과 상수도 기술인들에게 필요한 신규정보를 습득하였으며, 동경 물과학관에 방문해서는 주민친화적인 상수도 기술과 컴퓨터를 활용한 수자원 체형 등을 했다.

## 2007 일본수도협회 요코하마 수도전을 다녀와서

### 주민친화적 시설을 사랑하는 치바정수장

치바정수장은 일본 치바현 마츠도시 쿠리아마에 위치한 곳으로, 수돗물의 하루 생산량이 6만m<sup>3</sup>(향후 24만 6,000m<sup>3</sup>로 증설 예정)이며 에도강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인근 마츠도시, 이치카와시, 후나바시시에 공급하고 있는 신규 정수장이다.

이 정수장의 특징은 고도처리를 통해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진 등의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태양열 에너지로 사무실 전기를 공급하는 등 청정에너지 도입의 우수사례로 꼽힌다고 했다. 그 밖에도 분배조 등 상부부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친화적 시설을 지향하고 있으며, 시설건축로 전체를 장애인도 다닐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참관단은 현지 담당자로부터 치바정수장의 시설을 소개



인체 수분량을 체험하는 모습

받았는데, 특히 2년 동안 수돗물을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휴대용 스테인리스 물병은 획기적인 아이템이라 할 만했다. 이 물병은 지진의 위험이 많은 일본에서 긴급사태를 대비해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 체험형 수도전시회 '2007 요코하마 수도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퍼시픽 요코하마 전시홀에서 열린 '2007 요코하마 수도전'은 일본수도공업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일본수도협회, 요코하마시, 일본수도신문사, 수도산업신문사가 후원한 행사로 114개 업체가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참관단은 일본 내·외의 선진기술을 경험하고, 특히 지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진공법 등을 견학하면서 국내에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피해에 대해



전시회 전경



상수도 관람 연결 시연 장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요코하마 수도전은 단지 신기술을 소개하는 장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시공 장면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수도전시회로 구성되었다. 참관자들에게 수도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도물임을 홍보한 시음회 등은 역시 눈여겨볼 만한 행사였다.

###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춘 동경 물과학관

동경 물과학관은 방문객들이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수자원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대화식 컴퓨터 게임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었다. 덕분에 어린이 방문객이 많기로 유명한데,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교육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물이나 환경에 대해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은 많지만, 어린이들 눈높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은 많지 않기 때문에 동경 물과학관이 향후 우리나라 어린이 환경교육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치바정수장, 동경 물과학관, '2007요코하마 수도전'을 체험하고 내진시설, 선진공법 및 기자재 등을 둘러보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일본의 철저한 준비성과 환경교육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상수도시설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레 알려주는 눈높이 환경교육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 참관단들 모두가 이러한 부분을 공감하면서, 국내 상수도시설의 발전과 미래 환경의 주인인 어린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

※ 동경 물과학관 홈페이지 : [www.waterworks.metro.tokyo.jp/pp/kagakukan/kagaku.htm](http://www.waterworks.metro.tokyo.jp/pp/kagakukan/kagaku.htm)